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 올 국비 809억 투입

전남도 21개 혁신사업 착수 2024년까지 1조2000억 들여 저탄소 지능형 첨단 산단 변신

전남도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및 울촌제1일반산단 중심으로 여수·광양항을 연계할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을 위해 올해만 국비 809억원을 투입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대개조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46개 혁신사업을 추진한

다. 올해 809억원의 국비로 21개 사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은 '화학산업 중심의 자원순환·신산업 창출산단'으로 조성돼 산업단지 혁신을 선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위한 공용파이프랙 구축에 1000억원, 안전성 확보에 110억원, 환경·안전사고 개선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13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에 각각 258억원과 88억원이 지원된다.

철강 제품을 생산중인 광양국가산단은 울촌제1일반산단과 연계해 최근 급성장중인 이차전지 등 고부가 정밀화학 및 금속 소재부품산업으로 전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이 있는 울촌제1일반산단은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과 실증,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원대상이다. 관련 사업으로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220억원)을 비롯 지역선도 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58.5억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100억원) 등이 중점 추진된다. 근로자 근로·정주환경 개선과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복합문화센터와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며 아름다운 산단 거리도 조성된다.

올해 복합문화센터 건립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구축 526억원, 아름다운거리 조성 3개소 60억원,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24억5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박우욱 전남도 혁신경제과장은 "도내 산업단지는 연간 생산액이 100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광양만권 산단의 생산액이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와 산업 확장성 한계로 새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유능한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식품부 축산물 브랜드 경진 '녹색한우' 대통령상 연속 수상 '지리산순한한우'는 명품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전남 한우 광역브랜드인 '녹색한우'와 '지리산순한한우'가 전국 최고임을 입증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녹색한우'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이어 2020년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지리산순한한우' 역시 4년 연속 '명품인증'을 획득해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 한우광역브랜드인 '녹색한우'와 '지리산순한한우'는 일관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능력, 브랜드 및 위생안전 관리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사)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증 받은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영체들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심사를 벌여 축산물 생산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브랜드 관리가 탁월한 경영체를 우수 브랜드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의 '녹색한우'는 목표, 무안 등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 8개 축협의 3600여 농가가 참여중인 브랜드로 12만2000여두의 소를 사육중이다. 지난 2016년부터 홍콩으로 한우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 매출액 757억원을 달성했다. NH순한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지리산순한한우'는 순천, 고흥 등 전남 동부권 9개 시·군 8개 축협의 600여 농가가 참여한 전국 최초 한우 광역브랜드로 4만2000여두를 사육중이다. 전국 롯데마트 144개점 등에 공급중이며 2019년 한해 7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받았다

2015년부터 전국 청소년 대상 운영 리더십 특강·유적지 답사 등 행사

전남도의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 (사진)가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 중인 기관의 진로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 인증위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기관이 선정된다.

이번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중이다.

도내 문화유산과 이순신 유적지를 활용해 전국

자유학기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이순신 리더십 특강과 유적지 답사, 총무공 체험, 문화 배우기 등이 다양하게 구성돼 역사교육 현장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감염예방을 도모하고 캠프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캠프 참여자를 위한 방역마스크 제공 및 체온계·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실천 등 철저한 방역실천을 위한 준비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또 현장학습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선수군재건 44일의 기록을 담은 교육영상과 도내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콘텐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 28일까지로, 교육부가 운영중인 학생진로



체험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 꿈길(www.eggoomgil.go.kr) 누리집을 통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위 기극북 리더십을 알 수 있도록 해 이들의 자존감

을 높이고 진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남도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활용한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하세요

전남도 8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1월 8일까지 축산농가의 가족사육 환경개선을 위해 '2021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참여대상을 모집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가족 질병 최소화,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농가·농업법인,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등이다.

사업을 희망한 농가·법인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해당 시·군을 통해 농가의 예산 현황 및 적격 여부, 지원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 착수가 가능한 인허가 완료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확정된다.

지원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 면적을 기준에 따라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 구분돼 이자율이 차등 적용된다. 전남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하며, 이를 위한 사업비로 432억원을 투입한다. 사업비는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이전을 비롯 축사 내부시설과 외부시설(방역·분뇨처리 및 기자재 등), 경관개선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에 사용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정부 역점 시책사업으로, 전남도는 그동안 1618호를 대상으로 3658억원을 지원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사업을 통한 가족사육 환경개선으로 가족 질병 감소와 함께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우체국쇼핑 온라인마케팅 공모상

판매 확대·매출 증대 기여 공로

전남도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제2회 우체국쇼핑 온라인 마케팅 연도대전'에서 공모상을 수상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회째를 맞은 '우체국쇼핑 온라인 마케팅 연도대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중인 우체국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중인 전국 지자체 및 공급업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행사다.

시상은 우체국 쇼핑과 우체국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판매자와 협력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우정청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 추천받아 우체국 쇼핑과 국가 공익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전남도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지난 2011년 업무협약 이후 지역 농수특산물 시즌 기획전 등으로 온

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고, 매출 증대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뽑혔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우체국 쇼핑몰에는 전남 대표 농수축산물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제품을 판매중인 219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57%가 증가된 93억원을 달성했다.

전남도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상호교류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해 다져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농과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지방우정청은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확대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내 농수축산농가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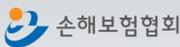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법정 감염병' 평가 국가 공인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의 지난해 '감염병 분야 실험실 검사 외부정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 판정을 획득해 검사 능력을 인정받았다.

3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정도평가는 '감염병 예방법'과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시행되며, 지역별로 발생된 감염병의 검사 결과에 대해 국가기관이 정확성과 신뢰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감염병 실험실 검사를 수행중인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 보건소 등 전국 총 6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법정 감염병인 잠복결핵과 매독, 식중독원인균 등 35항목에 대해 진행됐으며,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국가로부터 검사 능력을 공인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